

수자원관리 체제의 정착을 기대하며

김영환 (건설교통부)

· 1960년대부터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우리는 지난 30여년 간 도시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양적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도시·주택·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한 축으로써 수자원개발사업과 하천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왔다.

4대강 유역의 하천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용수공급을 위한 공작물의 설치, 홍수 예경보 시스템구축, 하천 제방의 축조 등이 추진되어 이제 5대 강 유역권은 웬만한 가뭄이나 홍수에도 대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앞으로 하천환경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므로 유한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본수단은 어느 정도 구비하였다고 본다.

한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산업·생활 용수가 늘어나 하천수계의 오염 부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의 상수원인 하천수나 지하수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금년과 같은 홍수나 '94-'95의 가뭄, 한강, 낙동강의 주요상수원의 수질오염 문제 등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때마다 정부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왔고, 그 대책 중 단골 메뉴로서 수자원 관리 추진체제가 거론되었으며, 또 일부 보완 되어왔다.

앞으로도 관리체제 문제가 논의되거나 변동될 소지가 있지 않나 싶다.

· 물 행정은 토지의 개발·보전행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수자원이 주택·공업단지나 도시개발행정의 제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 문제는 곧 국토개발과 보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수자원 추진 체제정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립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물 관리 행정은 실로 방대한 것이며,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어느 한 부처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며, 역할 분담이 필요한 문제 이기도하다.

역할분담이 필연적이라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이해 집단간의 조정은 필수적이며, 범정부 차원의 조정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수자원관리 체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느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싶다.

국토의 개발자는 오염자인 동시에 환경훼손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자이다. 개발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이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오염처리의 책임도 맡기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감시의 기능은 어떠한 경우라도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관리 체제의 기본 틀이 하루 빨리 갖추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사항 중의 하나는 감시나 감독 기능이 아무리 엄격하고 강하다고 하여도 이것은 부족한 기술능력을 증진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한다.

우리의 기술수준을 가늠하면서 달성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감시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수자원은 관리추진 체제구축에는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지고, 기술이 축적되고,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전문가가 양성된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를 얻으려면, 정책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관리추진체제의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조직관리의 관점에서 「안정성」이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특히 기초조사나 연구분야는 수년·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관되게 전문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번 확정된 체제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건변동에 따라 보완 발전시키되 「기본 틀」은 장

기간 유지시키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대부분의 물은 하천수이다. 하천 관리청은 하천구역내의 하천 수에 관한 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흔히 수량관리나 수질관리나 로 구분하여 관리의 주체를 논하는것은 지엽적인 시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천의 본·지류의 홍수나 상·하류 지역에 걸쳐 하천수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면, 수계 단위의 일관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도 이제 시간만 흐르면 차곡차곡 기술이 쌓이고, 기술이나 전문인력이 크게 발전 할 수 있겠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하루 속히 왔으면 하는 점이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놓고, 실효성 있는 수자원 관리 추진체제가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